

나무와 함께하는 자연생활 매거진 - 10 2013 우드플래닛

# WOOD PLANET



## 미백과 탄력? 애쉬에게 물어봐

### SPECIAL

- 해외건축
- 이런 침대
- 아이들을 위한 공간
- 인터뷰
- 아트

### 나무, 원두를 품다

- 노년의 동화를 꿈꾸는 집, Ingadi
- 잠 못 드는 밤, 나무 내리고
- 모험과 환상의 나무 놀이터
- 산림청장을 만나다
- 아티스트 박진희, 99개의 나무를 향한 시선

정가 12,000원



9 772234 780003

ISSN 2234-7801



해외 스페이스 : 구름집

## 구름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

### Le Nuage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잃은 텐트 막을 사이에 두고 개구리, 귀뚜라미, 새 등의 소리가 내부로 침투한다. 자연이 주는 적막한 평화로움을 만끽했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때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호기심 가득한 신개념 야외 주거 공간을 소개한다. 비록 그 공간 안에는 전기도 물도 흐르지 않지만 당신이 잊고 있었던 내면 깊은 상상력의 바다를 자극할 것이다.

글 김아름 기자 자료제공 Zedus/Buy-Sell





푸르른 호수가에 흰색의 정체모를 물체가 등장했다. 첫 번째로 이 물체가 포착 됐던 장소는 2010년 보르도 주거 밀집 지역의 한적한 외딴 호수가였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이 물체는 보르도 르르몽(Lomont) 인근지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 유년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늑한 공간

자연의 한 가운데에 등장한 이 움직이는 건축물은 이후 작은 언덕길로 자리를 옮겼다. 곡선의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구름 형상의 물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색다른 이 공간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휴식 같은 공간을 선사했다. 공상적인 상상력을 담아 일종의 캠핑 트레일러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유년시절의 어렵잖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구름모양은 사람들의 허구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떠오르게 한다. 이 공간 안에서는 그 어떤 몽상도 허용이 될 것 같다. 오직

평온한 휴식을 위해 전기와 물도 공급되지 않는 원시적인 공간이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신비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움직이는 야외주거 공간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그룹 Zebra3이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다. 높은 산을 일주하는 사람들, 도심 한복판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신개념 숙박시설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 우주적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공간을 갈망하는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대안공간이다. 누구나 원하는 때에 예약만 미리 해두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내부는 3개의 더블 침대와 1개의 싱글침대가 있어 최대 7명까지 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때때로 개구리들의 노랫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고 이른 새벽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





이 건축물을 기획한 건축가 캉디스 페트릴로(Candice Petillo)는 “하늘을 훨훨 나는 올빼미 한 마리가 습한 공간을 찾아나서는 이미지의 잔상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올빼미는 그가 이번 아외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다. 그는 도시에 올빼미가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생각에 그것을 실제로 제작하기로 마음 먹는다. 모두가 잠드는 시간에 홀로 깨어 주변을 감시하는 올빼미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도 건축물에 모티브를 제공했다.

#### 프랑스 유명 동물 조각가에게서 영감을 얻다

이 건축물은 세 마리의 올빼미가 서로 등을 마주대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올빼미가 사방의 적으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랑스의 두 조각가 프랑수아 풍퐁(Francois Pompon)과 프랑수아 자비에 라란느(Francois-Xavier Lalanne)의 작품을 오마주했다. 프랑수아 풍퐁은 건축을 공부한 후 동물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백곰, 황소 등의 조각품을 만든 작가이다. 프랑수아 자비에 라란느는 아내와 함께 평생 동물조각을 만들었던 예술가로 양떼, 개코 원숭이, 파리 등의

작품과 가구들을 만들었다.

올빼미 형상의 이 공간은 전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외관의 디테일한 장식을 모두 목재로 제작했다. 특히 올빼미의 깃털 하나하나를 나무를 잘라 붙여서 만든 작업을 통해 입체적인 조형미를 살렸다. 3개의 더블침대가 있어 최대 6명까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공간은 올빼미의 머리 부분인 이층 구조이다. 마치 새들이 등지에 웅크려 편안한 휴식을 취하듯 이층에는 한 사람이 둥글게 몸을 말아 누워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 이 올빼미 건축물의 기능은 바깥의 상황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이층에 올라간 사람은 작은 창문을 통해 강가에 비치는 그림자, 별, 달빛 등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 ⓧ